

차 “임기 내 개헌”... 野 “국면 전환용”

박대통령 시정연설 “정부 내 헌법 개정위한 조직 설치”

정치권 개헌정국 급속 재편... 대선정국 지각변동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대선정국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등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된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이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규정된 뒤,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반대편사를 표시해와 이날 개헌 제안은 의외였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날 개헌 제안을 ‘최순실·우병우 의혹’ 정국을 피해가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야권 내에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수여서 개헌 논의를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이 당장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선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개헌안 발의권자로서 국회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해 정치권과 개헌 주도권 쟁탈전도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관련,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국민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배경과 관련,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성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개헌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측근비리 돌파 정략... 동의 어렵다”

국민의당 “개헌 환영... 정권비리 은폐 안돼”

야권, 개헌 추진 배경 의구심

야권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략적 접근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거리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씨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이고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뒤늦게나마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면서도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깜짝 개헌 제안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식의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기회주의에 이용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헌, 청와대가 주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연합뉴스

대풍이라더니 쪽정이만... 전남 벼 수발아 피해 재배면적 10% 넘어

도 조사, 1만6703ha 집계
농민들 “전량 별도 수매를”

제18호 태풍 ‘차바(CHABA)’와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전남 벼 수발아(穗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 면적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2면〉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수발아 피해 면적이 1만6703ha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남 전체 벼 재배 면적(16만5천720ha)의 10.1%에 해당한다.

고흥이 4610ha로 가장 많았으며 영광 4382ha, 함평 2980ha, 영암 1842ha 등이었다. 수발아는 이삭이 난 후 25~35일이 지나고, 종자 중량의 25% 이상 수분과 호흡에 필요한 산소, 25도 이상 온도가 유지되면 발생한다.

피해량은 조곡 기준으로 6만4687t, 쌀 기준으로는 4만6574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전체 쌀 생산 예상량(84만8000t)의 5.5%에 해당하는 양이다. 조곡 기준으로는 고흥이 1만8950t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해남 9523t, 영암 9195t, 무안 5896t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더라도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수발아된 벼가 농협 수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가 추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전량 별도 수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



농부 조강우(63·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씨가 24일 ‘수발아’ 피해를 입은 벼 한 움큼을 쥐고 있다. 이삭에 진녹색의 새싹이 돌아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다. 하지만 피해를 본 쌀은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지만 가격 차이가 커 거리가 제한적이다. 결국 상당수 농민은 등의 매입 방침을 밝힌 정부에 열값으로 처분해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2012년에도 태풍 ‘볼라벤’, ‘덴란’의 영향으로 백수(白穗·이삭마름) 피해를 본 벼를 등으로 매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2년 당시 매입금은 정상 가격의 65% 수준이었다”며 “정부 중앙대책심의위원회가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하면 다음달 초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불안한 한빛원전

1·2·5·6호기도 관망음 상향 신청 ▶6면

사라지는 전남 리아스식 해안 ▶18면

2016 KIA 셋별 - 노수광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30일간의 문화 대잔치

2016
무등산
문화대잔치

2016. 10. 01. ~ 10.30. 일
* 주일 1 전국국악대잔치, 민박수, 일일음악회 등
* 상시 1 일제다식, 보리밥 도시락, 한복마실 등
* 축제기간(운영일) 일제 카피숍, 음식점 등
상가 20여곳 합동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062-232-1501
무등올림 사무국 062-232-1599

50
-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설화수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자음생크림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이모세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